

# 전립선은행 소식지

Prostate Bank Newsletter

## C/O/N/T/E/N/T/S

2011 전립선 은행 심포지움 개최	1
2011 제 5회 국회 국제 심포지움 및 연구소재은행 전시회	2
비뇨기 건강 정보	2
– 요실금에 대하여	
비뇨기 건강 정보	3
– 요실금의 종류	
– 요실금의 치료	
– 요실금의 예방법	
전립선은행 동향	4
언론보도자료	4



## 2011 전립선은행 심포지움 개최

교육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립선은행은 시작한지 5주년을 맞이하여 2011년 6월 24일에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1층 강당에서 [2011 전립선은행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식생활과 생활 양식이 서구화 되어감에 따라 전립선 질환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기초적, 임상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립선은행은 그동안 일반인 및 연구자들에게 연구용 검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인체 검체의 보존과 활용은 궁극적으로 연구 결과로서 성과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홍보의 중요성은 중요하다. 이번 개최하는 심포지움에서는 전자차트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전립선비대증의 최신소견등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 교환의 장이 되었다. 프로그램으로는 전립선은행 소개 (이지열 은행장/전립선은행), Epigenetic regulation of androgen receptor signaling in prostate cancer (하유신 교수/여의도 성모병원), 전립선은행 전자차트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최인영 교수/가톨릭대학교), 수인성 바이러스 은행 소개 (백순영 교수/가톨릭대학교), 전립선비대증의 최신소견 (배장호 교수/서울성모병원)이다.

발행처 사무국	전립선은행 사무국 137-040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505번지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 원 5010호
전화	(02)2258-7637
팩스	(02)2258-7637
E-mail	prostatebank@gmail.com
Home page	www.prostatebank.or.kr
분양신청	분양 신청은 전화, FAX,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011 제 5회 국회 국제 심포지움 및 연구소재은행 전시회



해마다 열리는 국회 국제 심포지움이 5회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재)연구소재중앙센터 주관,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 후원,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박영아 교육과학기술위원, 배은희 교육과학기술위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전립선은행은 전립선은행 소개 포스터 및 홍보자료를 준비해 검체은행으로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홍보하였고 특별히 전립선은행을 대표할 검체 모형을 준비하여 전시하였다.



### 비뇨기 건강 정보

## 요실금에 대하여

###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흘러 나와 속옷을 적시는 현상을 말합니다. 요실금은 위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 제약, 수치심 유발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증상은 남녀노소 어느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에서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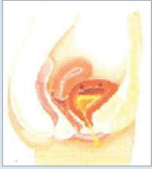


### 요실금의 종류

#### • 복압성 요실금

재채기, 웃음, 줄넘기, 달리기와 같이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흐르는 여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출산 시 방광하부 조직 및 골반저근의 손상으로 인한 방광의 위치 변동과 요도 괄약근의 약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 • 절박성 요실금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강하고 급작스런 요의로 마려운 순간 참지 못하고 소변이 흘러 속옷을 적시는 것으로 방광근의 이상 수축이나 신경손상, 방광염 또는 과민성 방광 등에서 나타납니다.



#### • 일류성 요실금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어 소변이 넘쳐 흐르는 경우입니다. 방광 배뇨근이 수축하지 못해 소변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잔뇨가 많이 남아 방광이 큰 풍선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당뇨, 말초신경 질환, 자궁암 또는 직장암 수술 후 생길 수 있으며 방치 하면 요로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신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 혼합성 요실금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같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요실금의 치료

#### • 약물요법

주로 절박성 요실금에 투여되며 소변의 저장과 배출을 담당하는 방광의 평활근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 골반근육운동

요실금의 원인이 되는 약해진 골반근육을 강화시키고 요도 괄약근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운동입니다.

#### • 체외자기장 치료

자기장의 자극에 의해 골반저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일으켜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 • 바이오피드백요법

기계를 이용하여 골반저근의 수축과 의도적인 배뇨근 수축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는 행동 치료 요법입니다.

#### • 전기 자극치료

골반근육에 전기 자극을 가해 인위적인 근육의 수축을 일으켜 근육을 강화 시킵니다.

#### • 수술요법

최근 들어 각광 받는 치료방법으로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경우 간편한 중부요도 슬링 수술을 통해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요실금의 예방법

-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 맵고 짠 자극성이 강한 음식은 방광을 자극하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습관을 유지합니다.

<출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 전립선은행 동향

### ● 2011년 병리학회 봄학술대회 참가/포스터 전시

-일시 : 2011. 5. 12(목)~13(금) 10:00~17:00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 2011년 제2회 연구소재중양센터 교육프로그램 참가



-일시 : 2011. 8. 26(금) 10:30~17:30  
-장소 : 서울역 GLORY 대회의실  
-주최 : (재)연구소재중양센터

## 언론 보도 자료

### ● SBS 뉴스 (7월1일) 방영 : [전립선암, 최소 침습 수술로 치료]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이지열 교수



전립선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서구식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하지만 일찍만 발견한다면 완치가 쉽습니다.

늘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는 50대 남성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건강검진을 받다가 전립선암이 발견됐습니다.

[정모 씨(50세) : 처음에 소변을 볼 때 시원하지 않은 느낌만 있고 아무런 증세가 없어서 (전립선암인 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립선에 가로 6cm, 세로 4cm 가량의 암 덩이가 있는 2기 환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했는데 전립선암에 대해 알아보니 요즘은 치료법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진 상태입니다.] 지난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전립선암 환자가 7년 새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기 쉬운 암이지만, 식습관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지열/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교수 : (전립선암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서양식 동물성 지방 섭취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이 서양식 음식에 많이 접하다 보니 전립선암이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데 요도가 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에 초기엔 증상이 없다가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엔 요도가 막혀 소변을 보기 힘들게 됩니다.

[황태곤/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교수 : 전립선이 워낙 혈액이 많이 공급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개복해 수술할 경우에 출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다. 그렇지만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은 배에 압력 넣어 탄산가스로 부풀려서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서 출혈을 할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에 수혈 없이 전립선암 수술을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은 배에 4~5개의 구멍을 뚫고 내시경이나 로봇 팔을 넣어 수술하는 최소 침습법으로 수술 후 회복이 빨라 환자의 통증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 수술의 어려운 점은 치골이 있어서 앞에 치골이 있어서 전립선으로 접근하기가 보이기 힘들지만 눈이 말하자면 뱃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잘 보이죠. 그래서 쉽게 잘 보이는 시야에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 수술은 10배 이상 확대된 3차원의 입체영상을 보면서 로봇 팔을 이용하기 때문에 손 떨림 없이 정밀하게 암 조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3~4배나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이지열 교수 : 로봇수술의 장점은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기 좋아 전립선암 수술에 적합. 전 세계에서 50~60%의 환자가 로봇수술로 치료받아] 최근 소변보기가 힘들고 자주 소변을 보는 빈뇨 증세까지 있었던 70대 남성입니다. 전립선암이 발견돼 바로 로봇 수술을 받았는데,

[이모 씨 (71세) : 로봇 수술이 출혈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받고 나니 잘됐다고 해서 기분이 좋고 마음이 활기차합니다.] 그런데 전립선암은 간단한 혈액검사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PSA라는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을 경우, 초음파와 조직검사로 암을 일찍 발견할 수 있는데, 따라서 50대 이상 된 남성들은 해마다 한 번씩 혈액검사로 PSA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 의사들은 당부합니다.

전립선은행 소식지는 1년에 4번 발행하며 전립선질환을 연구 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소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FAX, E-mail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